



‘새봄 첫 회의’ 후 길림성 새로운 경주로 드바쁘다

음력설 연휴 이후 첫 근무일에 길림성은 경영환경 최적화, 대상건설 가속화 대회를 열어 힘을 모아 경제효익을 최대화하고 혁신발전을 도모하며 경영환경 최적화를 위한 동원령을 내렸다. 동원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길림성 각 지에서는 분분히 새로운 코스와 새로운 자세로 앞다투어 경주를 시작했다.

‘새로운 코스’ 배치로 승리를 향해

2월 21일, 장춘시는 디지털경제 고 품질 발전대회를 소집하고 디지털경제를 진흥 발전의 새 코스로 확정함과 아울러 디지털경제 발전 난관들과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전역급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6가지 전문 행동을 배치하며 디지털 장춘계열 플랫폼을 가동, 운영했다.

즉 디지털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심(芯), 광(光), 성(星), 차(车), 네트워크(网)’ 등 우세 분야를 둘러싸고 중점 디지털산업 클러스터 능력 향상 행동을 계획 실시하며 장춘 ‘광전 자정보산업기지, 정월디지털경제산업단지, 광전자정보산업단지, 장광위성 우주정보산업단지를 다그쳐 건설하여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 장대 면에서 난관들과 추진한다. 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로 ‘능력 부여, 가치 부여, 지혜 부여’를 가속화하여 디지털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업의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하며 신형의 디지털 소비를 확대하고 디지털 능력 부여의 전환 발전과 업그레이드에서 난관들과 추진한다. 디지털화와 지능화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인터넷 + 정부부서’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뭉쳐서 한번 찾아가기’ 등 개혁과 도시 운영의 ‘통관(统管)’을 심화하여 디지털정부 건설 및 지체도시 건설에서 난관들과 돌파한다.

데이터 가치화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집결 및 융합, 공유개방과 개발리용을 가속화하며 장춘 데이터거래센터, 빅데이터시청가공기지 등 플랫폼의 기능을 완비하고 데이터 요소시장 육성 발전에서 난관들과 돌파한다.

백성, 송원, 료원 등 도시는 신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코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방향을 틀어쥐고 ‘바람 모래 도시’, ‘석유도시’, ‘탄광도시’에서 신에너지 발전, 신에너지 장비제조업과 탄소제로산업의 녹색도시로 결기하여 녹색전환발전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다.

전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다.

음력설 연휴 이후 출근 첫날, 길림성 경제개발구내의 기업들이 룩속 조업을 재개했다. 고도로 지능화된 공장에서 기계팔이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공정을 완성하고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참신한 태양에너지기판패널을 제조하였다. 이는 송원시신에너지태양광과학기술유한회사의 생산 장면이다. “우리는 미리 생산라인 유지 보수 조정을 잘해놓아 설을 쇠고 출근해 전력을 다해 생산하고 있다. 회사 효익이 좋으니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난다!”고 생산경리 송명량은 기쁨의 표정을 지었다.

자원 우세가 풍성한 발전 성과로 다그쳐 전환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2월 20일, 백성시는 전 시 첫분기 ‘좋은 스타트’ 사업배치회를 소집하고 목표를 주시해 배치를 틀어쥐고 ‘경마’ 기제를 최적화할 것을 요구했다. 료원시 ‘새봄 첫 회의’는 신에너지로 산업 구조의 전환을 선도하고 료원의 전통 석탄기지에서 현대 탄소제로고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글로벌 역사를 살펴보면 기업의 발전이든 국가의 진보든 방향을 정확히 보고 새로운 코스를 인도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국내를 내다보면 각지에서는 새로운 코스 경쟁면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은 각 분야에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의 갱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약 과학기술혁신이 경쟁력 향상과 현대화 선형을 추진하는 관건적인 변수라면 새로운 코스를 승리하는 것은 바로 산업업과 승격과 도로교체 주월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고삐’를 틀어쥐고 꾸준히 견지하고 끈기있게 질주해 공을 세우자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2일간의 시간을 내어 2024년 주 직속부문의 중대 프로젝트 계획 상황에 대한 회보를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회의에서 주발전개혁위원회, 주공업정보화국 등 부서는 각각 본 업계 분야의 2024년 중대 프로젝트 계획 상황을 보고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 지도자가 현장에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건의를 제기했다. 즉 발전개혁부문은 국가 중대 생산력 배치와 적극 연결하고 국가 자금 투입, 투자 동향을 바짝 따라가며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자원을 찾고 자금을 쟁취하며 산업구조 최적화, 농촌 진흥 추진,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문은 연변 공업종합서비스 플랫폼 ‘천명이 천기업 조력’ 기제에 의탁하여 프로젝트 봉사 보장을 잘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프로젝트가 유치되고 안정되고 유지되며 잘 발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상무부서는 두만강무역상담회, 2024 동북아로식산업발전대회 등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진 명절활동을 앞장서서 잘 개최하여 기업이 산업 향목, 지역분부, 연구개발기지, 마케팅센터, 결산센터를 연변에 정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4대 산업집군’ 육성, ‘6 신산업’ 발전, ‘4 신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통화시는 계속해 ‘대상건설 난관 돌파의 해’ 행동을 전개하고 산업대상 투자를 확대하며 중대 대상을 추진하고 ‘6대 영역 대상건설 회진’과 ‘4대 난관들과 행동’을 전개할 것을 제기하여 5,000만원 이상의 대상을 200개 이상 실시하고 500개 이상의 중점 대상을 동적으로 계획, 비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대상 투자 국면을 형성했다.

대상건설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이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밸러스트(压舱石)이다. 대상을 추진하는 것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고 대상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대상건설을 손에 틀어쥐고 여가에 짊어지는 것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고 한시도 태만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이다. 대상의 순조로운 출발을 통해 경제의 순조로운 출발을 촉진하고 오래도록 공을 들이면 반드시 반향이 있을 것이다.

길림시 실행을 틀어쥐는 데 중점을 두고 한걸음 앞서

일년은 봄을 기점으로 하고 만사의 행동을 앞세워야 한다.

2월 19일, 길림시는 전 시 회의를 소집하고 ‘9가지 해결 한가지 조정’을 심화하고 강성의 새로운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다. 전 시 상하가 발

전의 기준을 높이고 전면적으로 기준을 높이고 확실하게 구체화하며 경영주체의 수요를 선도로 하여 경영환경을 최적화할 것을 요구했다.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백산시당 위 서기는 대오를 이끌고 광동성 불산시, 광주시, 심수시와 하북성 보정시를 방문해 의약건강, 지역 관광 등 산업에서 협력을 모색했다. 인삼의약산업만 보더라도 백산시가 이번 중국 중앙지주유한회사를 방문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인삼 전체 산업사슬 개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국인삼산업시범구를 건설하여 백산의 인삼의약산업이 전역급 규모로 매진할 전망이 보인다.

음력설 연휴 이후 첫 주, 사평시는 고 표준농지건설관리추진회, 국유자산사원활성화리용전문회의 등 중점 업무 조를회의를 집중적으로 소집해 형세를 분석하고 조치를 연구하며 다음 단계의 중점 업무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해 전 시에 ‘혁신하고 착실하게 일하며 합작제 추진하자’는 동원령을 울렸다.

포지도 중요하지만 락차가 더 중요하다. 과학적인 결책, 면밀한 포치, 웅대한 목표는 오직 실천과 기층, 대중 속에서 당원, 간부, 대중의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만 강대한 생명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2023년, 우리 성의 경제운행은 안정적인 반등, 안정 속에서 발전, 안정 속에서 질적으로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보여 솔선 돌파의 튼튼한 지력을 보였고 ‘상승기’와 ‘패속도’에 진입하는 왕성한 태세를 보였는데 이는 바로 전 성 상하가 난관을 돌파하고 참담하게 실행한 결과이다. 성당위는 올해를 ‘실행에 주력하는 해’로 확정했는데 바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정책 결결과 포치가 락착되고 뿌리내려 균중 복지로 되게 하려는 것이다.

경영주체는 경제환경과 시장의 온도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다.

2월 23일, 장춘신구에서는 고품질 발전대회를 열었다. 이와 달리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기업이 대표와 금융, 싱크탱크, 상협회, 투자유치기구 등 중요한 전략 협력 파트너를 초청하여 중심 위치에서 발언하게 했다. 시장의 활력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경영주체가 점점 더 ‘획득감’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이유가 확실해진다.

초목이 만발하니 봄 산경이 바라보인다. / 길림일보



음력설후 안도경제개발구내의 기업들이 룩속 생산을 재개, 전력을 다해 ‘좋은 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길림의통장백산실업유한회사의 종업원들이 새송이버섯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

길림성 8개 ‘중화로자호’ 새로 증가

일전, 상무부 등 5개 부문은 제3진의 ‘중화로자호’(中华老字号) 명단을 발표했다.

길림성동약업그룹주식유한회사, 길림성대안시대발실업유한책임회사, 길림성금향공예품제조유한회사, 호기식품양조주식유한회사, 길림성백산방대상업무역유한회사, 길림시봉길원음식문화서비스유한책임회사, 길림화춘당건강관리유한회사, 장춘단씨간담방병원유한회사 등 8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중화로자호’ 명단에 선별되었다.

현재까지 길림성의 ‘중화로자호’ 기업은 28개에 달한다.

소개에 따르면 장기간 길림성상무청은 로자호의 바른 전송과 혁신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동했다.

정책의 인도를 견지했는데 <로자호의 혁신 발전을 촉진할 때 관한 길림성 실시의견>, <길림로자호 인정 관리방법>, <길림로자호 표시와 간판 사용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로자호의 규범적인 발전을 인도했다. 발전 제대(梯队)를 구축했는데 중화로자호, 길림로자호, 시급로자

호 3급 제대를 건립하고 로자호 경영주체를 적극 육성했다. 길림성에는 현재 길림로자호 165개가 있으며 장춘시와 길림시를 지도하여 시급로자호 인정사업을 전개하고 시급로자호 90개를 인정했다.

시장 개혁을 촉진했다. 길림성 로자호 홍보 영상을 만들고 로자호 기업을 조직하여 박람회, 소비박람회, 로자호박람회 등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제 6회 수입박람회에 길림성의 25개 로자호기업들이 참가하여 현장 판매액 60만원을 넘겼고 주문액 700여만원을 달성했으며 합작의향 38개를 체결했다.

마케팅 홍보를 강화했다. 기업 자원을 통합하고 중국우정부문과 연합하여 길림로자호 선물세트와 길림로자호 설날 음식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로자호 인터넷 카니발을 조직 전개하였는데 2023년도에 생방송 매출이 70회를 초과했으며 루게 판매금액 천만원을 달성해 브랜드 지명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 길림일보

교육부 명단 공시! 길림성의 6개 학교 입선

일전 교육부는 중소학교 인공지능 교육기지 명단을 공표했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들에서는 <중소학교 인공지능교육기지 추천 사업을 전개할 때 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교기청합 [2023] 29호)의 요구에 근거하여 철담계 인공지능과정을 교수로 조직하고 교사대오 배치, 실험환경 건설 등 면에서 비교적 좋은 기초가 있는 중소학교들이 적극 신청 등록했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의 선결과 추천을 거쳐

고 교육부의 집중 공시 등 고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184개 중소학교를 중소학교 인공지능교육기지로 확정하였는데 길림성에서는 6개의 중소학교가 입선되었다.

길림성에서 입선된 학교들로는 동북사범대학부속중학교, 길림성실험중학교, 장춘시실험중학교, 장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제2실험학교, 길림시제1중학교, 사평시제1고급중학교 등이다.

/ 길림일보

장백산전기비행체험 전국 육성시범항목 명단에

2월 22일, 문화관광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발부한 <전국 제1차 스마트관광 몰입식 체험 신공간 육성시범항목 명단을 발표할 때 관한 통지>에 따르면 ‘장백산전기비행체험관 스마트관광 몰입식 체험 신공간’이 명단에 선정되었다.

장백산전기비행체험관(长白山传奇飞行体验馆)은 첨단 몰입식 비행 체험관으로 다이내믹 좌석에 앉으면 관람객을 직경 20미터의 돔스크린 속으로 진입하게 하며 공중에 떠있는 좌석은 6개의 자유도로 부드럽게 전환하여 관람객이 그 속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장백산전기비행체험관 스마트관광 몰입식 체험 신공간’에서 상영되

는 <장백산을 날아보다>는 장백산의 실경을 2년간 촬영해 장백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라매의 시각으로 360도 날아보고 현곡을 지나고 고산준령을 날아넘으면서 장백산 꽃바다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폭포수 물보라를 만지며 장백산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야생동물과 만나며 접점이 들어선 림해를 날아보고 망망한 실연을 넘으면 장백산 천지가 관중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런 체험으로 천지의 사계절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이런 몰입식 체험은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고 맑게 해 매우 경험 가치가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2월 24일 저녁, 정월대보름을 맞으면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 민족단결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내용을 주제로 한 2024년 정월대보름 드론편대연출 및 꽃불축제 행사가 연길시에서 펼쳐졌다. 이날 전 주 여러 민족 군중들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함께 다채로운 축제를 감상하며 대보름 명절을 경축했다.

/ 길림일보